

닛신보의 “얀다이드” - 2007년도부터 자동판매 개시

닛신보오의 자(子)회사인 닛신보오얀다이드(yarn-dyed)는 2007년 4월 1일부터 자동판매(自動販賣)를 개시하였다. 이제까지 모든 선염사(先染絲)는 닛신보오의 가공면사과(加工綿絲課)로부터 주문을 받아 생산하는 방식이었는데, 앞으로는 닛신보오얀다이드가 직접 아이찌현(愛知縣)의 비슈우산지(尾州產地)를 중심으로 선염사를 판매도 하고 수탁(受託)가공도 하기로 하였다.

동사(同社)는 타래염색의 실켓(silket)가공을 월간 70톤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용도는 선염니트 50%, 양말 50%이었는데, 현재는 50~55톤을 처리하며 자동판매를 개시하면서 풀(full) 가동할 계획이다. 직물용도를 포함하여 폭넓게 처리하기 위하여 치즈(cheese)염색보다는 광택이 좋다는 타래염색의 장점을 살리면서 모든 소재를 처리한다. 그 지방에 밀착(密着)하면서 소로트·단납기로 대응해 나간다고 닛신보오얀다이드는 말하고 있으며, 비슈우산지 이외의 지역에도 판매하려고 계획하고 있다.

비슈우산지에 대한 판매는 이제까지 가공면사과가 오오사까에서 판매해 왔는데, 좀처럼 산지 내 고객을 완전히 꼭 잡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찌노미야시(一宮市)에 본사가 있는 닛신보오얀다이드에서 산지 내에 판매원을 상주시킴으로써, 보다 섬세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비슈우산지에서 울(wool)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실을 취급할 수 있게 된 것도 비즈니스 찬스(business chance)로 보고 있다. ♣